

茶戶里遺蹟의 靑銅器와 辰弁韓

이 청 규*

I. 머리말

II. 영남지역의 청동기문화의 변천과 분포

1. 비파형동검시기(1~2단계)
2. 세형동검시기(이건무 2003)
3. 변형동검시기이후(9~10단계)

III. 다호리유적의 청동기

IV. 다호리 청동기와 주변과의 교류

1. 한국 청동기와 近距離 교역
2. 中原系 청동기와 遠距離 교역

V. 다호리 청동기와 진변한사회의 형성

VI. 맺음말

참고 문헌

* 영남대학교

I. 머리말

기원 전후한 시기에 다호리 목관묘 유적에 副葬된 청동기는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다. 동 청동기가 과연 영남 전 지역에서 기원전 1천년 전 기간에 걸친 한국 청동기문화의 시공간적 변천 속에서 어떻게 파악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이번 논문의 목적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영남지역의 下位地域 別로 청동기의 시간적 변천과정을 설명하고자 하는 바, 이미 필자가 제출한 바 있는 段階論에 최근 자료를 덧붙여 최소한으로 이를 수정 보완하는 수준에서 작업을 하고자 한다(이청규 1997).

그런 다음 다호리유적 출토 청동기의 형식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주변지역 집단과의 교류관계, 나아가 그것이 고대 문헌기록에 나오는 진변한과 관련지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겠다. 물론 이 질문은 단순히 청동기만으로 접근할 일은 아니지만, 동 유물이 갖는 威勢品的 성격 때문에 다른 어느 부장유물보다 나름대로 의의 있는 설명을 할 수 있으리라 이해된다.

II. 영남지역의 청동기문화의 변천과 분포

태백산맥 이남, 소백산맥 이동에 위치한 영남지역은 그 한가운데에 낙동강이 북부 내륙에서 남부 해안 지역에 걸쳐 남북으로 길게 흐른다. 이러한 낙동강유역과 그 支流를 따라 영남지역은 상류, 중류, 하류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외에 낙동강의 支流가 미치지 못하는 동해안과 남해안 도서지역을 추가 구분할 수 있다(後藤直 1985, 岡内三眞 1989, 宮里修 1998, 정인성 1998, 조진선 2005, 이재현 2007).

일단 청동기가 분포하는 양상을 따져서 낙동강 상류와 그 지류 주변에 있는 尙州·金泉·龜尾·善山 등지의 지역을 묶어 A지역으로 분류하였다. 다음 낙동강 중류와 그 支流인 錦湖江유역의 星州·大邱·慶山·永川을 묶어 B지역으로 하고, C지역은 兄山江유역의 慶州와 安康·浦項, 그리고 D지역은 낙동강 하류의 咸安·金海·密陽·昌原, E지역은 남해안의 泗川·固城 등지를 지리적 공간으로 삼았다.

표 1. 영남지역 청동기의 변천

시 기	단계	연 대	청 동 기	유 적				
				A (상주/구미/김천)	B (대구/성주/경산/영천)	C (경주/포항)	D (함안/김해/밀양/창원)	E (고성/사천)
비파형 동검시기	I	800~600BC	전형 비파형동검			청도 예전동		
	II	600~400BC	변형 비파형동검	김천 송죽리· 문암리			창원 덕천리· 진동리	사천 이금동
세형동검 시기	III	400~300BC	초기형 세형동검	상주 낙동면				
	IV	300~200BC	세형동검, 동모				김해 내동	
	V	250~100BC	細形銅鉞, 細形銅戈, 청동방울, 다뉴세문경	전 상주		경주 입실리	김해 회현리	사천 마도동· 월성동
	VI	100~50BC	긴세형동모, 有文銅戈, 竿頭鉞		대구 팔달동· 신천동, 경산 입당동	경주 죽동리· 입실리·조양동		
	VII	50~0BC	中細形銅鉞, 中細形銅戈, 前漢鏡		대구 지산동, 영천 용진동, 성주 예산동	경주 조양동· 안계리	창원 다호리, 밀양 교동, 김해 가야숲	
	VIII	0~50AD	中廣形銅鉞, 中廣形銅戈, 後漢鏡, 1식 仿製鏡		대구 만촌동· 비산동, 영천 어은동, 경주 사라리			
변형동검 시기	IX	50~100AD	변형동검, 中廣形銅矛, 後漢鏡, 2식 仿製鏡				김해 양동리 427	
	X	100~150AD	廣形銅鉞				김해 양동리	고성 동외동

물론 이외의 지리적 공간에도 청동기가 분포하는 바, 그 제작과 보급의 시스템이 폐쇄적이거나 일정한 루트를 통하여 流通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청동기는 대부분 일정한 수준 이상의 신분을 가진 사람의 무덤에서 출토되므로 동 청동기부장무덤은 다른 생활유적처럼 널리 無作爲의으로 분포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지역에 제한되는 특징이 있음이 주의된다.

1. 비파형동검시기(1~2단계)

1단계(기원전 800~600)는 전형적인 비파형동검을 標識로 하는 단계로서 동 단계에 영남지역의 하위지역별로 뚜렷한 분포양상이 확인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낙동강 하류 D지역의 공간적 범위에 속하는 청도에서 동검이 발견되었을 뿐이다.

2단계(기원전 600~400)는 변형의 비파형동검을 표지로 하는데, 동 단계에 낙동강 상류 A지역의 김천 문암리, 낙동강 하류 D지역의 창원 덕천리 등지에 청동기가 보급된다. 청동기 제작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있으나 아직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

2. 세형동검시기(이전무 2003)

3단계(기원전 400~300)는 세형동검 초기로서, 동 단계에 여전히 영남지역에서는 청동기가 널리 보급되지 않으나 형산강유역의 C지역에 가까운 迎德의 출토예가 있다.

4단계(기원전 300~250)는 세형동검 전기로서 몇몇 유적의 예로 보아 영남의 여러 하위지역에서도 청동기 보급이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단계이다. 그러나 청동무기 이외에 이 단계를 특징지을만한 粗細文鏡 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여전히 영남지역은 그 주변에 머무르는 것으로 보인다.

5단계(기원전 250~150)를 대표하는 청동기가 細文鏡과 細形銅戈, 청동방울인데 영남 지역에도 A지역인 尙州에서 청동방울 세트가 발견된 바 있다. 또한 C지역인 경주 입실리와 E지역인 사천 월성동, 전 경남지역에서 세문경이 출토된 바가 있다. 銅銚, 銅斧, 銅鉞 등의 청동기가 B지역의 경산 임당동 등지에서도 확인되었다.

6단계(기원전 150~50년)는 전 단계까지 청동기문화의 주변지역이었던 영남지역에서 이제 청동기 자체 형식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제작·보급되는 단계이다. 거푸집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 지역만의 독특한 형식의 청동기가 발견된다. 특히 B지역인 낙동강 중류의 금호강 연변의 大邱-永川지구와 C지역인 형산강유역의 慶州-浦項이 그 중심이 되는데 血溝에 衫枝文 혹은 格子文이 장식된 동과, 血溝가 있는 銚身과 이중 돌기 및 마름모꼴 무늬가 특징인 慶州式이라고 불릴만한 동모가 보급된다. 또한 길이가 길어진 세형동모가 낙동강 상류의 A지역, 중류의 B지역, 하류의 D지역에 이르기까지 전역에 분포한다.

7단계(기원전 50~0)에는 전 단계에 다종다양하게 새로 제작되었던 동모, 동과가 거의 확인되지 않고 있어 영남지역의 청동기문화가 일종의 停滯期로 접어드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이 단계부터 본격적으로 철기가 보급되는 것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길어진 細形銅鉞만 보급될 뿐이고, 中細形銅鉞 형식만 추가될 뿐이다. 이 형식의 동모는 영남 이외의 지역에서는 일본에서 발견된다. 일본에서 유행하는 중세형동과 또한 김해 가야의 숲에서 발견되었다. B지역인 대구-경산-영천과 C지역인 경주-안강에서 細文鏡을 대신하여 중국의 前漢鏡이 수입되어 부장된다. 한식경을 모방한 仿製鏡은 아직 제작되지 않았다.

8단계(기원후 0~50)에는 전형적인 세형동검의 검신에 혈구가 있거나 등날이 슴베 끝까지 나있는 동검이 유행한다. 동모나 동과로는 일본에서 제작·보급되었다고 주장되는 中廣形이 발견된다. 한편 B지역의 대구, 경산, 영천 등에서는 전한경을 모방한 방제경이 제작·보급되는데 그 일부는 일본 九州지방에도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3. 변형동검시기이후(9~10단계)

9단계(기원후 50~100)에는 낙동강 중류 B지역에서 거의 청동기가 사라지고 D지역에서 의기화된 독자적인 양동리식의 동검과 동모가 유행한다. 良洞里式 銅劍은 일본 쓰시마에서도 발견된다. 한편 일본 九州에서 유행한 廣形銅鉞가 낙동강 하류 D지역인 김해와 남해안 E지역인 固城 등에서도 발견된다. 新의 王莽鏡이 유입됨과 동시에 한편으로 1식 방제경의 후기형과 함께 2식 방제경이 보급되는데, 2식 방제경은 일본에 크게 유행하는 것이다.

10단계(기원 100~150)에는 더 이상 B, C지역에서 청동무기가 제작·보급되지 않는다. 다만 일본산으로 추정되는 武器形際器인 廣形銅鉞와 仿製鏡 2식이 D, E지구에서 발견될 뿐이다.

Ⅲ. 다호리유적의 청동기

앞서 보듯이 한반도에서 기원후 1천년기 전 기간에 걸쳐 제작·보급되는 청동기에는 무기, 공구, 장신구, 儀器, 巫具, 거울, 장식품 등이 있다. 그 중에서 다호리유적 수습기의

목관묘에서 부장품으로 나온 청동기는 무기로서 검 6점과 附屬金具, 동모 2점, 장신구로서 수점의 帶鉤와 장식품이 있을 뿐이고, 중원식의 청동제품으로 星雲文鏡과 五銖錢이 전한다. 器種別로 목관묘의 出土狀況을 살펴보면 다음 <표 2>와 같다(이건무외 1989 · 1991 · 1993 · 1995).

표 2. 다호리유적 출토 청동기

청 동 기		목 관 묘									
종 류	기 종	1호	2호	3호	6호	17호	19호	23호	24호	61호	63호
무기	劍	2			1		1				1
	劍把頭飾	2		1	2	1	1		1		1
	附屬金具	2	1				1		1		
	矛	1							1		
裝身具	帶鉤	1									
	관상고리	1									
	고리	1									
장식품	小銅鐸	1								1	
	단추			1							
	관옥									1	
異形銅器	牛角形銅器						1				
	鉤形銅器						1				
	雙頭管狀銅器						1				
거울	星雲文鏡	1									
화폐	五銖錢	3									

이들 청동기의 형식과 그 공반관계를 살펴보면 그 대부분이 앞서 기원전 50~0년에 속하는 7단계에 속한다.

무기 중에 세형동검은 1호 · 6호 · 19호 · 24호에서 출토되었는데, 수장묘급에 해당하는 1호에서 2점이 腰坑에서 출토된 것을 제외하면 모두 1점씩 출토되었다. 세형동검의 칼집은 1호 · 2호 · 19호 · 24호에서 출토되었는데 대구 비산동, 경주 사라리 130호묘, 대구 평리동, 경산 임당동, 대구 만촌동 등지에서 확인된 형식과 같다(宮里修 2001).

동모는 1호와 24호에서 출토되었는데 1호의 예는 길이 55.2cm의 비교적 긴 형식으로 중세형에 속한다. 동 단계의 동모와 유사한 예가 최근에 영천 용전동 목관묘에서 출토된 바 있다. 24호의 동모는 길이 15.6cm로 단봉의 세형인데 몸에 혈구가 있고, 공부 끝에 고리가 달린 형식이다(임소연 2006).

장신구로서 1호에서 대구와 부속금구가 부장되었는데 1점은 곡봉형으로 이와 유사한 형식이 대동강유역의 한대 무덤에서 다량 발견된 바 있다. 다른 1점은 원판형으로 삼각 거치문이 장식되어 있는 것인데, 공반되지는 않았지만 호랑이 혹은 말 모양의 버클장식과 짝을 이루는 것으로 추정된다. 虎形 버클의 경우 대구 비산동, 경산 부적동, 영천 어은동, 경주 사라리 등지에서 7~8단계의 것이 발견된 바 있다.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동 형식의 유물은 남해안지역에서 전혀 출토된 적이 없다.

장식품으로 小銅鐸이 1호와 61호에서 출토되었다. 이러한 소동탁은 대동강유역의 평양 석암리와 황해도 은률 운성리 등지에서 출토된 바 있고 영남지역에서도 대구 신천동, 영천 용전동, 경주 조양동 등지에서 출토된 바 있다(국립경주박물관 2007).

異形銅器로서 牛角形銅器, 鉤形銅器, 雙頭管狀銅器가 19호에서 출토되었다. 다호리에서 나오는 이들 이형동기는 검집부속 장식으로 추정되기도 하는데, E지구 사천 마도동 유적에서 발견된 바 있다.

거울은 1호에서 星雲文鏡 형식의 전한경이 1점 출토되었는데, 성운문경 중 II식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성운문경은 한반도 내에서 대동강유역, 그리고 영남지역에서는 D지역의 밀양 교동 1호의 출토예가 있으며, 파편으로 C지역의 영천 용전리 출토예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전한경은 영남지역에서 금호강유역과 형산강유역, 그리고 낙동강 하류 유역에서 출토된 바 있는데 성운문경 이외에 異體字帶文鏡, 虺龍文鏡 등이 있다. 남한지역에서 출토된 전한경의 대부분은 영남지역에서 출토되었고 남해안지역을 제외한 앞서 3개 지역에 분포한다.

화폐로서 오수전은 1호 목관묘에서만 3점 부장되었다. 각각 穿上橫文五銖錢, 四角挾文五銖錢, 無特徵錢으로 분류된다(이영훈 · 이양수 2007). 전한의 화폐로는 半兩錢이 사천 늑도에서 발견된 바 있지만, 그 대부분이 오수전이고 무덤에 부장된 상태로 발견된다.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기원전 1세기 후반 7단계의 경산 임당동과 영천 용전리 등지의 유적에서 발견되었다. 그리고 埋納된 상태로 발견된 예는 한반도 남부지역 여천 거문도 등의 예가 있다.

IV. 다호리 청동기와 주변과의 교류

진변한은 문헌기록상 기원후 3세기에 등장한다. 따라서 기원 전후한 시기의 다호리 목관묘 등의 고고학적 증거는 辰弁韓 그 자체를 말해주지 못한다. 기원후 3세기에 해당하는 고고학적 증거는 더 이상 청동무기가 부장되지 않고 철기가 다량 부장되는 木槨墓이다.

그동안 영남지역에서 발굴조사된 성과를 토대로 볼 때, 동일 지구 내에 위치를 달리하여 존재하는 경우는 있지만 동일 墓域 내에 목관묘가 목곽묘로 계승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다호리유적 또한 그러하다. 다호리유적이 속하는 D지역 낙동강 하류 주변의 가까운 곳에 목관묘에서 목곽묘 단계로 이행되는 예로는 김해 양동리와 대성동의 예가 있는데 이 또한 지점을 달리한다. 기원전 1세기의 무덤이 3세기의 그것과 위치를 달리한다면, 小國의 공간적 범위나 중심취락에 전혀 변화가 없었다고 말하기는 곤란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목관묘 단계에 영남의 5개 하위지역에 걸쳐 古式 瓦質土器에 공통된 樣式을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목곽묘단계에도 동일 지역 간에 공통된 양식이 있고,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는 공통된 양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무덤의 지점 이동이 있었지만, 토기 양식이 거의 비슷한 지리적 공간 내에 상호 연결된 네트워크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기원전 1세기~기원후 1세기의 목관묘와 기원후 2~3세기 목곽묘 단계를 진변한 소국의 초기 단계로 설명할 수 있다(주보돈 2002, 이희준 2002, 이재현 2003).

이러한 초기 단계의 변진한 소국의 존재와 그 네트워크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다호리유적의 청동기인 것이다.

다호리유적이 위치한 곳은 함안 칠서 이하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류 유역의 중간지점으로서 낙동강 남변에 해당한다. 바꾸어 말하면 낙동강 중류의 B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낙동강 하류 C지역의 初入部에 해당한다. 이러한 지리적 위치로 볼 때 B지역과 가장 近距離에서 용이하게 교류할 수 있는 지점이 다호리유적인 것이다.

청동기를 통하여 지역 간의 구체적인 교류관계를 살피려면 그 제작과 관련된 직접적인 증거가 확보되어 제작지가 확인되어야 한다. 아울러 그 청동기의 외형적인 형식은 물론 성분분석을 통하여 물자이동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다호리 청동기와 관련하여 그러한 증거가 확보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다만 그 형식적 相似性을 따져서 막

연하나마 간접적으로 추정할 뿐이다(이현해 1998).

그러한 청동기의 교류상은 영남지역 이내의 근거리와 영남 바깥 지역과의 원거리 이동이라는 관점에서 우선 정리될 수 있다(이청규 2001 · 2002).

1. 한국 청동기와 近距離 교역

남한에서 청동기가 적어도 2단계인 기원전 600년경에는 제작되었다는 증거가 부여 송국리 집자리, 강릉 교동의 지석묘 등지에서 발견된 거푸집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다. 본격적으로 제작 보급되는 것은 4단계로서 비록 거푸집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 지역의 독특한 형식의 異形銅器와 粗細文鏡 등은 물론 그 부장된 숫자를 통해 추정할 수 있다. 그 중심지는 금강중하류와 삼교천 유역으로 동 지역의 여러 무덤에서 발견된 각종 청동기가 그 증거이다(박진일 2003).

5단계에 이르면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 남부지역에 청동기가 제작되는 바, 그 구체적인 증거로 영산강과 금강 유역 등지에서 발견되는 각종 청동기 거푸집을 들 수 있다. 비록 거푸집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함평 초포리, 화순 대곡리 무덤 등에서 확인되는 남한만의 독특한 형식의 청동기, 다뉴세문경과 각종 청동방울을 통해 제작공방의 據點이 호서와 호남의 남한 서부지역이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영남에서는 어느 단계에 청동기 제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가를 입증할만한 직접적인 증거인 거푸집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역시 이 지역의 독특한 형식의 청동기 출토사례로 보아 적어도 기원전 1세기경을 전후한 6단계에는 다량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른 지역에서 발견되지 않는 有文銅戈(허준양 2008), 긴 세형 동모와 돌기 달린 異形銅矛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처럼 특색 있는 청동기는 B, C지역에서 확인되므로, 동 지역이 그 거점이라 보는 것에는 무리가 없다(이양수 2008).

7단계에 이르러 다호리유적이 속하는 D지역 낙동강 하류 지역에서는 청동기 제작이 어떠한 수준이었을까. 앞서 소개하였듯이 다호리유적에서 발견되는 청동기는 상대적으로 빈약한 편이다. 검과 모의 무기, 장신구와 장식품 수점에 불과할 뿐으로 우선 기종의 다양성과 수량, 특징적인 형식의 청동기가 없는 것으로 보아 동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청동기가 제작되었다고 주장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호리 목관묘에 부장된 청동기가 다른 지역으로부터 수입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그 1차 후보지는 동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금호강 유역인 B지역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하겠다. 이처럼 B지구로부터 근거리 교역을 통하여 유입되었다고 할 때, 결국 낙동강 유역에 하나의 제작 거점을 상정하는 셈이 된다. 그러나 영남지역에 제작공방이 다수가 존재했을 가능성은 배제하지 못한다.

바다 건너 일본 규슈지역의 경우 후쿠오카의 수쿠사카모토 등 일정지점에 많은 거푸집이 발견되어 최대의 공방지라고 알려져 있지만(平田定幸 1997), 北九州 연안 지역은 물론 사가현과 멀리 구마모토 지역 여러 지점에서 이미 기원전 1세기 이전의 검, 모, 과의 거푸집이 또한 발견되고 있다. 일본에서 청동기 거푸집이 발견된 유적에서는 상당수가 한반도계 粘土帶土器 등과 공반되고, 따라서 청동기를 제작한 주체는 한반도에서 건너간 장인집단이 남긴 것으로 추정된다(片岡宏二 1999).

일본 규슈지역의 사정이 그렇다고 한다면 기원전 1세기 이전에 영남지역 여러 곳에서 이미 청동기 제작공방이 조성되었을 것이며, 다호리 청동기가 현지 혹은 그 가까운 지역에서 제작되어 調達되었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청동기 자체가 유통된 것이 아니고, 동일한 형식의 청동기를 제작할 줄 아는 匠人集團 당사자들이 이주하였거나 제작기술을 배워 익힌 새로운 장인이 현지에서 보급시켰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大阪府立彌生文化博物館 1999).

근거리 교역이든 장인집단의 이동이든 그것은 상호 소통되는 일정한 네트워크가 조성되었음을 기반으로 한다. 그 네트워크는 여러 학자들이 주장한 바처럼 동일 양식의 瓦質土器를 공유하는 사실과도 통하는 바, 영남지역 5개 지역간에 조성되었다고 이해된다. 그 네트워크는 청동기 기종의 다양성과 숫자로 보아 B지역 혹은 C지역을 거점으로 한 人的·物的 네트워크라고 추정되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고 한다면 7단계 이후 동일한 형식의 청동기가 영남과 규슈지역에서 출토되는 사실도 동일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집단에 속한 장인에 의하여 제작되어 각각 다른 지점으로 유포·보급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吉田廣 2003, 南健太郎 2007). 製作地가 다르고, 消費地도 다르지만 동일한 正體性和 紐帶關係를 갖는 장인 집단에 의해 제작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호리유적에서 출토된 쌍두관상동기, 우각형동기 등의 이형동기와 圓板形 고리銅器가 일본의 쓰시마와 규슈지역에서도 출토된 것은 영남지역에서 터득한 제작기술을 공유한 집단에 의한 것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그것은 한균현 지역에서 제

작되거나 그 지역을 中繼地로 하여 보급된 중원계 청동기와는 전혀 다른 제작기술정보 네트워크인 것이다.

2. 中原系 청동기와 遠距離 교역

다호리유적에서 출토된 청동기 중 원거리 유통의 증거로서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중원의 漢式鏡(이양수 2006)과 화폐이다. 한식경은 한군현이 설치된 서북한지역에 집중 보급되었음이 樂浪의 무덤에 부장된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다(국립중앙박물관 2001, 윤용구 1999, 오영찬 2006). 그러나 거푸집이나 工房터와 관련된 적극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 거울의 현지 제작을 입증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이를 단정짓기도 어렵다.

분명한 것은 다호리유적이 위치한 낙동강 하류 D지역의 중원식 청동거울은 한군현이 위치한 서북한으로부터 유입되었거나 아니면 적어도 동 지역을 중계로 하여 중원으로부터 유입되었을 것이다(大阪府立彌生文化博物館 1993). 그것은 동경의 製作工房을 관리·경영하는 漢郡縣 관리이거나 중원 현지로부터 수입할 능력을 지닌 상인을 통해서야만 입수가 가능하였을 것이다.

영남지역 현지의 일반 상인들이 한군현을 왕래하며 수입하지 못하였으리라는 법은 없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보다 많은 중원 거울이 영남의 진변한지역으로 유입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주지하다시피 한식거울은 다호리 목관묘유적의 예에서 보듯이 수장급 무덤에 限定 副葬되는 것이다. 영남지역 現地人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다호리 首長級 인사가 인정하는 代理人의 자격을 부여받은 자가 거래를 하였으며, 그것은 단순히 商去來 유통이 아닌 정치외교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호리 집단의 일정한 실력자가 정치적인 威勢를 인정받는 대가로 내려진 일종의 賜與品이라고 추정할 수도 있다. 또는 동 지역의 특산물과 교역하는 방식으로 획득하였을 것이며, 그러한 교역은 일반 상인보다는 일종의 使臣 성격을 지닌 대리인에 의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그리고 그 유통루트는 대형물자가 아닌 이상, 海路는 물론 陸路 중에서도 저지대나, 산간 고개 어느 교통로든 다 가능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外地商人이라고 한다면 서북한에서 영남지역에 이르는 육로가 복잡하므로, 현지인의 안내를 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연안해로를 이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권오중 2000). 그렇다고 한다면 서

해안을 거쳐 남해안을 잇는 沿岸航路를 이용, 낙동강 하류지역을 거점으로 하여 다호리 유적에 청동기가 유입되었을 것이다. 실제로 일본에서 발견되는 상당수의 前漢鏡은 그러한 경로를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영남지역에서 전한경이 발견되는 지역은 지금까지 경남 해안도서가 아니라, 낙동강 중류와 그에 가까운 하류지역이다. 동 거울의 需要者가 한정되며, 남해안지역에는 없다고 한다면 남해안 루트를 경유한다 하더라도 전한경이 동 지역에 발견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전한경의 수요자가 낙동강 유역의 B, C지역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바, 그렇다고 할 때 영남 내륙의 육로를 상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소형 화물인 전한경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하겠다. 서북한에서 영남지역으로 곧바로 연결되는 육상루트를 이용하였다면 이 루트에 익숙한 사람, 즉 상인 혹은 대리인이 동원되었을 것이고, 그것은 지금까지 중원계 청동기가 다량 출토된 B, C지역에서 거점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 화폐는 경제적 체계로 볼 때 기원 전후한 변진한 지역에서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 生必需品은 物物交換으로 거래되거나 적어도 소금 혹은 쌀 등으로 거래수단을 삼았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다호리유적에서 발견된 오수전은 전한경과 마찬가지로 중원지역에서부터 유입되거나, 혹은 漢郡縣 지역에서 鑄造되어 流布된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 반대 의견이 있지만, 한군현 지역에서는 거푸집이 발견되어 한대 화폐가 주조되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있다(국립중앙박물관 2001, 박선미 2008).

화폐는 전한경과 달라서 본래 위세품으로 사용되거나 朝貢의 대상은 아니다. 원래 한군현 지역 내에서 거래 수단으로 보급·유통되었겠지만, 진변한 지역에서는 그렇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진변한의 單位 小國은 말할 것도 없고, 소국 간의 교역에 적극 활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보듯이 극히 일부 수장급 무덤에서 수점 발견될 뿐으로 광범위하게 보급되었다고 추정할만한 근거는 없다.

분명한 사실은 동 화폐가 영남지역 내에서 제작·보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한군현 지역에서 유입되었다는 사실이다. 그 화폐를 유통시킨 주인공은 유물의 성격상 변진한 지역의 상인 혹은 대리인이라기보다 한군현에 속한 상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화폐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土着人이 이를 적극 유통시킬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군현의 상인들이 그들의 교역권을 확장할 목적으로 이들 화폐를 널리 보급시키려 했을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앞서 제시한 기원전 1세기 전반 7단계에는 영남지역의 여러 지역에서 板狀鐵斧가 제작·보급·부장되며, 다호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판상철부가 화폐의 역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수용한다면 다호리유적 등지에서 발견된 오수전은 더욱 화폐로써의 기능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송계현 1995, 村上恭通 1998). 그나마 한군현으로부터 威信財를 구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고 할 때, 제한적이거나 변진한 여러 소국의 수장층에서 수요가 있었을 것으로 이해된다.

앞서 한식경과 마찬가지로 화폐를 유통시킨 주체가 樂浪商人이라면 주로 남해안 연안 루트를 적극 활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나(김경철 2007), 현지인의 안내를 받아 육로를 이용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전한대인 7단계에 발견되는 화폐는 주로 낙동강 중류 금호강유역의 B지역, 낙동강 하류의 D지역 등 내륙에서 발견되는 목관묘의 부장품이라는 사실이다.

新과 後漢代인 기원후 1세기에 해당하는 8단계에 속하는 화폐로서 오수전 이외에 貨泉과 大泉五十 등이 남해안 도서와 제주도에서 발견되었는데, 동 단계에 속하는 내륙의 목관묘에서는 더 이상 화폐가 무덤에 부장되지 않는다. 또한 기원후 1세기 이후 후한대 화폐가 발견된 유적들은 전 단계와 달리 모두 무덤이 아닌 생활유적인 점이 주목된다. 더 이상 화폐는 영남지역에서 무덤의 부장품으로 인식되지 못하였다는 것인데, 그것은 판상철부가 원거리 무역의 거래수단으로 더욱 중시되는 현상과 맞물리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호리 1호 목관묘에서는 10여 매의 판상철부가 부장되면서 오수전 3매가 함께 부장되었다. 용전리 무덤에서도 오수전이 3매 부장되었지만 역시 부장된 판상철부의 수는 10매를 넘지 못한다. 그러나 판상철부는 9단계인 기원후 1세기대 이후 후기 목관묘인 사라리 130호에 70매 부장되는데 반해, 한대 화폐는 한 점도 부장되지 않는다. 김해 양동리 목관묘에서도 40여 매의 판상철부가 부장되었지만 한대 화폐는 전혀 부장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한대 화폐는 A, B, C, D지역을 아우른 영남 전역에서 목관묘 전반기에 중시되다가 그 후반기에는 그렇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이는 결국 한대 화폐를 거래수단으로 하는 한군현과의 교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한 배경에는 이 지역 집단간에 鐵素材 즉 판상철부를 비롯한 財貨가 있어 이를 대신하게 된 것으로 이를 통하여 동 지역간의 근거리 교역 체계가 유지·강화되고 있었음을 말해 준다 하겠다. 이를 입증하는 것이 앞서 설명한 다호리유적의 한국식청동기인 것이다.

V. 다호리 청동기와 진변한사회의 형성

한반도에서 기원전 1천년기 전 기간에 걸쳐 제작·보급되는 청동기 중에 다호리 목관묘의 연대에 해당하는 기원전 1세기 후반 7~8단계에 이르면 무기 중에 검, 모, 과는 물론 공구 중에 끌, 도끼 등도 그 실용적인 우수성 때문에 철제품으로 거의 대부분 대체된다.

주지하다시피 검은 한반도 남부지역에서 청동기가 보급되기 이전까지 石材를 이용하여 무덤에 부장되었다. 그러다가 청동제 검으로 대체되었는데, 세형동검시기에 와서는 종전에 1점만 부장되었던 것과 달리 다수의 검을 부장하기 시작한다. 劍은 辟邪의 의미와 함께 무력적 권위 혹은 위세를 상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 권위적 위세를 같은 무기인 창과 과가 청동으로 제작되면서 더욱 강조되는데, 이와 같은 사실은 5~6단계 영남 지역에서 확인된다. 그러다가 다호리유적의 7단계에 이르면 대부분 鐵製品으로 대체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호리 1호 목관묘 등에 무덤의 부장유물로써 많은 철제유물과 함께 여전한 검, 모 등의 청동무기가 채택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까. 첫 번째로 先代로부터 권위의 상징으로 물려받은 것을 계속 소지하였다가 부장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물려받음이 혈연을 통한 것이라면 權威의 世襲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동 권위가 집단 구성원 간에 두루 전달되는 것으로서 보아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자체 제작·소유한 경우인데, 이 경우 전통적 권위를 再創出한 것으로 이해된다. 동검으로 권위를 재창출한다는 것은 결국 선대로부터 인정받은 전자와 달리 당대에 성취 획득한 것임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다호리 1호묘는 청동기 이외에도 다른 유물이 부장된 규모와 종류가 다른 무덤에 비해 절대 우위이다. 상대적으로 부장유물이 빈약한 무덤에서는 대부분 동검, 동모가 부장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동검, 동모가 철제품과 함께 권위의 상징물이었던 것은 분명한데, 청동기가 철기보다 상대적으로 더욱 비중 있는 위세품이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가.

분명한 것은 다호리 목관묘 수십 기 중에 청동무기가 부장된 것은 몇 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다수의 목관묘 피장자 중 소수가 소지 부장하였다는 것인데, 그것이 청동무기의 稀貴性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被葬者가 이를 권위의 威勢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결과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만약에 후자라면 당연히 다량의

부장유물을 부장한 1호 목관묘에서도 청동기가 탈락되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청동무기가 부장된 1호·19호·24호의 목관묘 경우 다종다양한 철기는 물론 철기가 상대적으로 다량 부장되어 있는 바, 같은 무기이지만 청동기가 철기보다 상대적으로 비중 있는 위세품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여하튼 전형적인 한국식동검, 동모 등의 청동기가 전통적 권위의 위세품으로 무덤에 부장되었다는 것은 기원후 50년을 전후한 8단계까지이다. 주목되는 사실은 이 시기에 영남지역 전체의 목관묘는 물론이거니와 다호리 목관묘유적 자체의 조영도 거의 끝난다는 사실이다. 바꾸어 말하면 청동무기와 목관묘 묘제 양자가 거의 동시에 소멸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결국 영남지역에서 부장유물은 물론 무덤구조를 아울러 埋葬 혹은 葬送儀禮에 있어 새로운 관념과 인식이 발생하고, 종전과는 다른 시스템이 영남의 진변한지역에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高倉洋彰 1993·1999, 안경숙 1998).

한편 청동기는 전통적인 무기가 부장되었지만 거울의 경우 전통적인 다뉴세문경 대신 중국 한식경이 부장된다. 주지하다시피 다뉴세문경은 5단계에 그 제작기술이 최절정에 달한다. 구리와 주석의 합금비가 거의 7:3으로 거울로서 가장 적합한 경도와 반사율을 보장하고, 배면에 장식된 기하학무늬를 위한 고도의 제도방법, 蜜蠟 혹은 토제 거푸집에 있어 최고의 주조기술을 동원한 것이다. 그러한 다뉴세문경 대신 동 다호리유적의 7단계에 중원 혹은 한군현으로부터 수입된 한식거울이 부장되는 것이다.

앞서 보듯이 청동제 무기와 공구 등은 素材의 풍부함은 물론 도구로서의 용도가 더욱 효과적인 철기로 대체되었다. 그러나 중원 한식경보다 품질상에서 뒤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최고조로 발전된 기술을 보여주는 다뉴세문경의 제작·보급이 갑자기 중지된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동인을 생각할 때 우선 동 기술을 확보한 장인집단이 갑작스럽게 해체되거나, 제작 기술정보가 전승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작하고 싶어도 동 기술을 保有한 장인집단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보급되지 않았던 것이다. 다른 한편 아예 동 다뉴경의 제작 수요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다뉴경의 제작에는 원료공급과 기술도 문제였겠지만, 무엇보다 동 거울을 제작하는 과정에 전문장인이 상당한 기간 이에 전념할 수 있는 興件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한 여건과 비용을 마련할 수요자가 없을 경우 제작·보급이 불가능할 것이다.

다뉴세문경의 需要者는 주지하다시피 당시 소국의 우두머리나 이에 버금가는 실력자이다.

이 거울은 태양을 상징하는 神器로서 종교적 권위와 위세의 상징물이다. 그러한 다뉴경을 이들이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기원전 1천년기 초 비파형동검단계로부터 계승된 종교적 권위를 포기하고 새로운 종교적 질서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논리 비약인지는 모르나 古朝鮮 - 三韓으로 이어지는 전통적인 권위를 포기함에 다름이 없는 것이다.

이는 문헌기록을 통하여 확인되는 역사적인 史實과 時點에서 크게 차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호리 목관묘 1호는 물론 서북한지역을 비롯하여 영남 전역에 걸쳐 수장급 무덤에서 세문경 대신 중원계 한식 거울이 부장되는 사실과 맞물린다. 바로 직전 단계까지 다뉴경이 부장되었는지, 곧바로 中原鏡으로 대체 되었는지, 아니면 다뉴경과 중원경이 지역집단에 따라 6단계를 전후하여 병행하면서 각기 부장되었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지금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영남지역에서는 7단계 기원전 1세기 중반 이후에 비로소 중원계 청동기가 부장된다. 밀양 교동, 대구 지산동, 경주 조양동 등등 한식경이 부장된 이른 단계의 것이 기원전 1세기 후반에 편년되는 것이 이를 입증한다. 그렇다면 한다면 변진한의 영남지역에서는 한군현이 설치된 직후가 아니라, 반세기가 지난 이후에야 비로소 그러한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이는 결국 한반도의 據點 政治集團이 고조선에서 한군현으로 바뀌고 반세기가 지나서야 진변한지역에서 수장급이 기반을 둔 전통적인 종교 이데올로기상의 변화가 일어났음을 의미한다.

VI. 맺음말

이번 논문에서 다호리 청동기를 대상으로 한 논의는 관련 자료를 치밀하게 분석한 토대 위에서 시도된 것이 아니라, 어설픈 問題의 提起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문헌기록에 나오는 변진한과 청동기 자료를 대응시키는데 실상 많은 推論過程을 거쳐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였다. 청동기 자체의 형식을 꼼꼼히 따져서 지역 간의 관계를 살피고, 나아가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확보한 후에 제작과 유통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臆測과 추론에 근거한 이번 논문을 시도한 것에는 무리가 있으며, 또한 1차 자료에 대한 정리도 제대로 못한 오류도 있었을 것이라 짐작된다. 문제가 있는 부분은 차후 다시 수정 보완하고자 한다.

참고 문헌

□ 논문·저서·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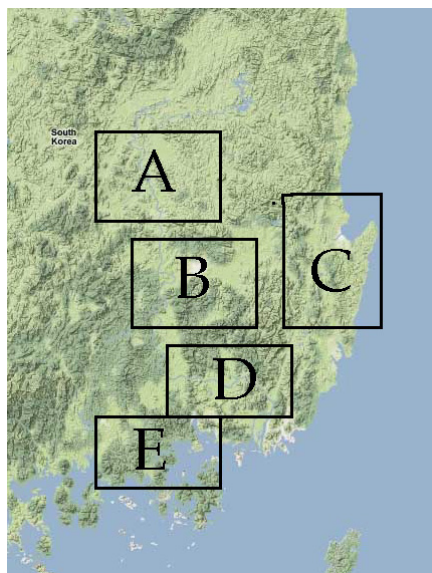
-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5, 『성주 백전 예산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문화유적 발굴 조사보고서』
- 국립경주박물관, 2007, 『永川 龍田里 遺蹟』 국립경주박물관 학술조사보고 19
- _____, 2003, 『경주 조양동 유적(I)·(II)』 국립경주박물관 학술조사보고 13
- 국립김해박물관, 2003, 『弁辰韓의 黎明』
- 국립중앙박물관, 1992, 『한국의 청동기문화』
- _____, 2001, 『특별전 낙랑』
- 權五重, 2000, 『方格規矩四神鏡의 流轉』 『東아시아 歷史의 還流』, 서강대 동양사연구실
- 김정철, 2007, 『남한지역출토 한 대 금속화폐와 그 성격』 『호남고고학보』 17
- 밀양대학교박물관 · 밀양시, 2004, 『밀양 교동유적』
- 박선미, 2008, 『한반도출토 한대 화폐와 그 의미』 『선사와 고대』 28, 한국고대학회
- 박진일 2003, 『변진한사회 형성기의 토기문화』 『弁辰韓의 黎明』, 국립김해박물관
- 송계현 1995, 『낙동강하류의 고대 철생산』 『가야제국의 철』, 인제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 안경숙 1998, 『다뉴경에서 한경으로 전환에 대한 연구』, 한양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영남문화재연구원, 1999, 『경산 임당동유적 I』
- _____, 2000, 『대구 팔달동유적 I』
- _____, 2001, 『경주 사라리유적 II-목관묘·주거지』
- 오영찬, 2006, 『낙랑군 연구』, 사계절
- 윤용구, 1999, 『삼한의 조공무역에 대한 일고찰-한대 낙랑군의 교역형태와 관련하여-』 『역사학보』 162
- 이건무, 2003, 『한국식동검문화의 연구』, 고려대학교박사학위논문
- 李健茂 外, 1989, 『義昌 茶戶里遺蹟 發掘進展報告(I)』 『考古學誌』 1, 韓國考古美術研究所
- _____, 1991, 『昌原 茶戶里遺蹟 發掘進展報告(II)』 『考古學誌』 3, 韓國考古美術研究所
- _____, 1993, 『昌原 茶戶里遺蹟 發掘進展報告(III)』 『考古學誌』 5, 韓國考古美術研究所

- _____, 1995, 「昌原 茶戶里遺蹟 發掘進展報告(IV)」『考古學誌』 7, 韓國考古美術研究所
- 이양수, 2006, 「한반도출토 한경의 분배와 유통」『考古學誌』 15
- _____, 2008, 「辰韓地域 木棺墓出土 靑銅器」『영남문화재연구원 21회 조사연구회 발표 자료집』, 영남문화재연구원
- 이영훈 · 이양수, 2007, 「한반도 남부출토 오수전에 대하여」『영천 용전리유적』, 국립경주 박물관
- 李在賢, 2003, 『변진한사회의 고고학적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07, 「영남지역청동기문화의 특질과 그 형성배경에 대하여」『한반도의 청동기 제작기술과 동아시아의 고경』, 국립경주박물관 · 나라현가시하라고고학연구소 · 아시아주조기술사학회
- 이청규, 1997, 「嶺南지방 靑銅器文化의 전개」『嶺南考古學』 21, 영남고고학회
- _____, 2002, 「嶺南지역의 靑銅器에 대한 論議와 解釋」『嶺南考古學』 30, 영남고고학회
- _____, 2001, 「기원 전후 慶州와 周邊과의 交流-토기와 청동기를 중심으로」『한국상고사학회 연구총서 5』
- 李賢惠, 1998, 『韓國 古代의 생산과 교역』, 一潮閣
- 이희준, 2002, 「초기 진변한에 대한 고고학적 논의」『진변한사연구』, 경상북도 ·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 임소연, 2006, 『변진한지역 출토 동모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鄭仁盛, 1998, 「낙동강 유역권의 細形銅劍 文化」『嶺南考古學』 22
- 趙鎭先, 2005, 『細形銅劍文化의 研究』, 학연문화사
- 주보돈, 2002, 「진변한의 성립과 전개」『진변한사연구』, 경상북도 ·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 許俊亮, 2008, 『韓半島 東南部地域 有文銅戈 에 대한 研究』, 경주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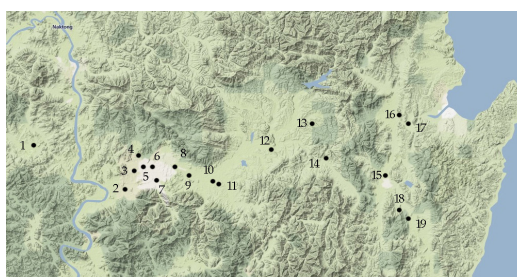
□ 외국자료

- 岡内三眞, 1989, 「朝鮮の靑銅器文化」『季刊 考古學』 27, 雄山閣
- 高倉洋彰, 1993, 「前漢鏡にあらわれた權威の象徴性」『國立歷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 55
- _____, 1999, 「副葬のイデオロギー」『季刊 考古學』 27, 雄山閣

- 宮里修, 1998, 『朝鮮半島靑銅器文化の研究』, 早稻田大學大學院修士論文
- , 2001, 「朝鮮半島の銅劍について」『古代』109
- 吉田廣, 2003, 「朝鮮半島出土の倭系武器形靑銅器」『靑丘學術論集』22
- 大阪府立彌生文化博物館, 1993, 『彌生人の見た樂浪文化』
- , 1999, 『渡來人登場』
- 村上恭通 1998, 『倭人と鐵の考古學』, 青木書店
- 片岡宏二 1999, 『彌生時代 渡來人と土器・靑銅器』, 雄山閣
- 平田定幸, 1997, 「奴國の靑銅器生産センター」『彌生の鑄物工房と世界』, 北九州市立考古博物館
- 後藤直, 1985, 「朝鮮半島靑銅器文化の地域性」『三上次男博士喜壽記念論文集』, 吉川弘文館
- 南健太郎, 2007, 「韓半島における小形仿製鏡の生産」『한반도의 청동기 제작기술과 동아시아의 고경』, 국립경주박물관·나라현가시하라고고학연구소·아시아주조기술사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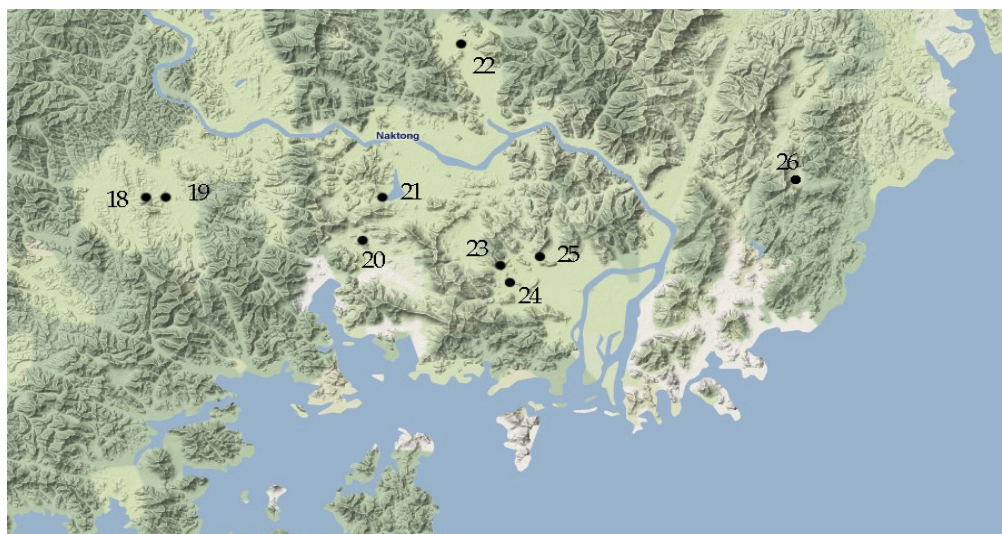


도면 1. 영남의 지역 구분
(구글지도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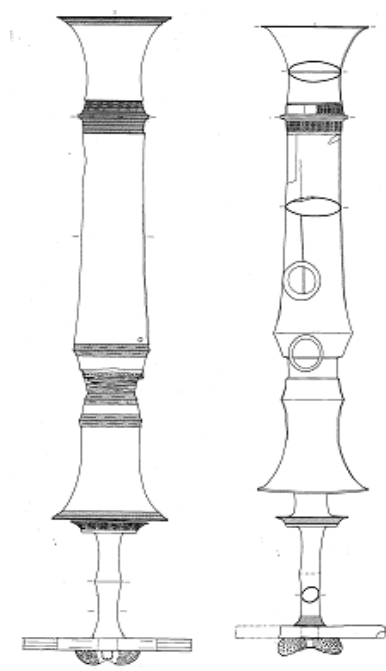
도면 2. 영남지역의 목관묘유적(1)
(구글지도 인용)

1. 성주 예산동 2. 대구 월성동 3. 대구 비산동 4. 대구 팔달동
5. 대구 신천동 6. 대구 구정동 7. 대구 지산동 8. 대구 만촌동
9. 대구 가천동 10. 경산 임당동 11. 경산 신대동 12. 영천 어은동
13. 영천 용전동 14. 경주 사라리 15. 경주 황성동 16. 경주 인동리
17. 경주 안계리 18. 경주 죽동리 19. 경주 입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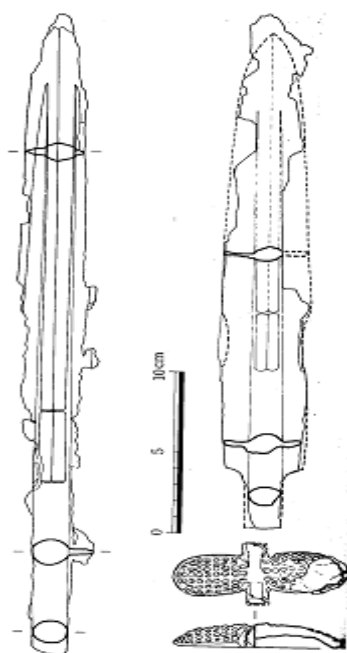


도면 3. 영남지역의 목관묘유적(2)(구글지도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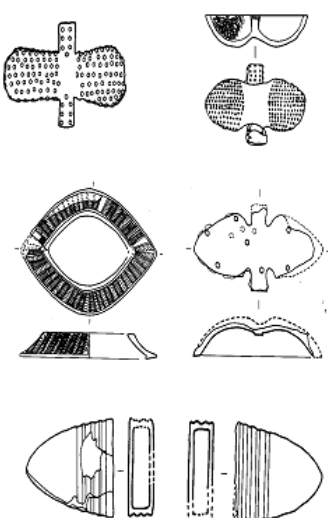
18. 함안 말산리 19. 함안 도항리 20. 창원 도계동 21. 창원 다호리 22. 밀양 교동
23. 김해 양동리 24. 김해 내덕리 25. 김해 가야숲 26. 부산 정관 방곡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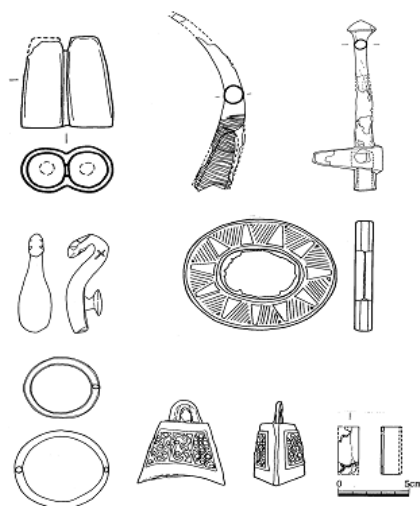
도면 4. 다호리 1호 목관묘 부장
동검 칼집(축척부동)



도면 5. 다호리 19호, 63호 동검
(축척부동)



도면 6. 다호리 1호, 19호 목관묘
검파두식과 부속금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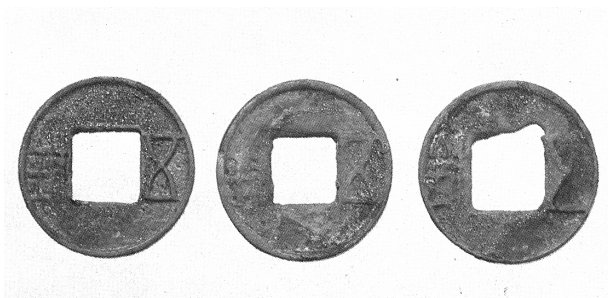
도면 7. 다호리 1호 목관묘 부장
이형동기, 장식품, 장신구와
63호 청동대롱 (축척부동)



도면 8. 다호리 1호 부장 동모와 동검



도면 9. 다호리 1호 부장 성운문경



도면 10. 다호리 1호 목관묘 부장 오수전